

협회소식

임원·지부장 연석회의 개최

—현안 입법화 위해 의원들 설득키로

본회는 지난 7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을 비롯 70여명의 임원,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은 「최근 몇년간 우리의 양돈형태는 총사육두수는 증가하나 사육호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오염규제와 수입개방압력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본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조금제도 입법화 등 현안 타결을 위해서



모든 양돈인들이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지부장들은 본회의 육류수출협

본회 전동용 회장, 민자당 농림축산분과위원장에 피선



전동용 회장

본회 전동용 회장이 민자당 중앙상무위 농림축산분과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7월 1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정재철 중앙상무위 의장과 70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자당

중앙상무위 농림축산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동용 회장은 단독 입후보, 만장일치로 재선됐다.

전 위원장은 당선후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농축산분야는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여러 위원들과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당면과제인 농지기본법, 산림법, 양곡관리법 등의 개정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불합리한 축산정책의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민자당 경제대책특위 농수산소위 위원과 농어촌 발전 특위 위원도 겸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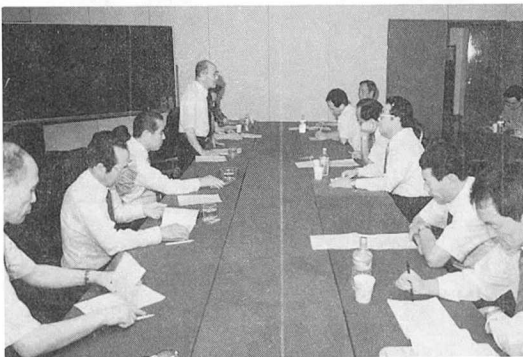
회 설립인가 반대 건의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임원·지부장 공동명의로 정부와 정당 등 관계요소에 재차 건의키로 했으며 '93년도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 자조금 제도 입법화, 양돈업 허가제 및 허가 상한선 유지, 사료 및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 개최 이전에 각 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양돈가들이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키로 합의했다.

또한 오수, 분노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7월20일까지 본회 지도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접수하여 환경처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전동용회장은 신임 오정남 제주도협의회장과 손종선 당진지부장에게 인준서를 수여했다.

허가 상한선 폐지 철회 강력 촉구

— 본회 비상대책위원장들 농림수산부 방문



본회는 지난 7월 23일 양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의(위원장: 이명복)를 열고 양돈업 허가상한선 폐지 움직임과 육류수출협회 인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본회의 양돈업 허가 상한선 폐지반대와 육류수출협회 인가 반대 방침을 재확인 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가 끝난후 위원들

과 노영한 전무이사는 농림수산부로 김동태 축산국장을 방문하고, 협회의 입장을 강력히 개진했다.

이날 김동태 축산국장은 양돈업 허가상한선 폐지 방침과 관련,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양돈농가들이 반대할 경우 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개정해야 할 법률로 코드번호가 매겨져 있어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동태 축산국장은 육류수출협회 인가 문제와 관련, 「양돈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육류수출협회로 하여금 양돈협회와 발전적인 방향에서 합의를 하도록 한후 인가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돼지고기에 종량세 부과해야

— 본회 농림수산부, 재무부에 건의

본회는 7월 27일 돼지고기 수입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종가세 관세제도를 종량세와 복합세로 바꿔 부과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와 재무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현행 종가세 관세제도하에서는 값싸고 수입 물량이 많은 농축산물의 수입이 붓물을 이룰 것으로 보고, 수입물량에 대해 부과하는 종량세와 복합관세를 '94년부터 부과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본회는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양허된 품목은 양허된 수준에서 종량세(specific duties)를 적용하고, 수입가격의 등락이 심한 부위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복합 적용하는 복합관세(Compound duties)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 수입되는 냉장돼지고기는 50%의 기본관세율(양허관세율 25%)이 적용되며, 염장·훈제 복부살(베이컨)은 30%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엔 지속적인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며 수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미

국, 일본 등에서 저가품 수입억제를 위하여 수입량(무게)을 기준으로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본회 양돈업 자조금사업 본격 시행 계획

- 정부, '93 양돈업 자조금 사업운용계획 승인

농림수산부는 7월 20일 본회가 지난 6월 7일 승인 요청한 '93 양돈업 자조금 사업운용계획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본회는 금년중에 회원들이 납부하는 생산자 자조금 3억원과 정부 보조금 1억5천만원 등 총 4억5천만원의 자조금을 조성, 자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본회는 돼지고기 소비촉진홍보에 1억8천3백만원, 생산성 향상 및 조사연구사업에 5천8백40만원, 정책개발 연구에 4천8백60만원, 생산자 및 소비자 계도·교육사업에 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본회는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돼지고기 요리강습회와 시식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돼지고기 요리책자, 포스타, 표어, 전단을 제작·배부하고 신문과 TV를 통해서도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본회는 이밖에도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대만의 양돈생산비와 부분육 수출시의 국내 도착 가격 등을 조사해 국내 양돈산업의 방향 지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본회는 양돈농가들에게 최신 양돈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세미나와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돼지고기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돈군건강진단사업 등도 자조금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검정돈 선발지수 합격선 상향 조정

본회는 양돈농가들의 고능력돈 선호도에 호응하고, 현재 검정소에 출품되는 종돈의 개량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1, 제2검정소 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능력검정 선발지수 합격선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선발지수 합격선은 대요크셔 수퇘지가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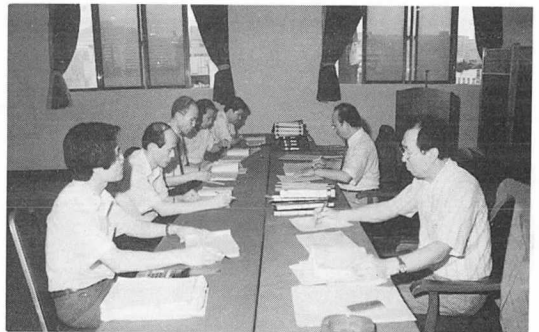
점에서 200점으로, 듀록과 랜드레이스 수퇘지는 190점에서 195점으로, 햄프셔 수퇘지는 185점에서 195점으로 각각 5~10점씩 상향 조정됐다. 암퇘지는 품종에 관계없이 170점 이상 그대로다.

개정된 선발지수 합격선은 제1검정소는 6월 20일 경매 종돈부터, 제2검정소는 7월 5일 경매 종돈부터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본회는 최우수돈 선정시 보다 높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품종 상위 점수의 검정돈을 대상으로 선발지수와 함께 각 검정위원들이 채점한 외도심사 결과를 점수화 해 합산한 후 최우수돈을 선정키로 했다.

본회의 선발지수 합격선 상향 조정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보다 우수한 능력의 종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종돈개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 '93년 상반기 감사 수감



본회 '93년 상반기 자체감사가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됐다.

본회 이현운 감사와 박대관 감사는 본회의 일반회계, 홍보회계, 검정소회계, 자조금회계 등 회계감사와 지도사업, 홍보사업, 검정소사업, 자조금사업 등 회무 전반에 걸친 서류감사 및 검정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김해지부 부가세 영세율 적용 1,101명 서명

김해지부는 7월 8일 그동안 배합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울 적용과 자가배합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부 차원에서 양돈농가를 상대로 전개해 온 서명운동에서 서명받은 1,101명의 서명부를 본회에 제출했다.

김해지부는 수입개방을 앞두고 양돈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정기국회에서 이들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한달간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본회는 서명결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정당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본회 박병양씨 상무로 영입



박 병 양 상 무

본회는 7월 6일 회무를 황성화하기 위하여 박병양씨(67세)를 상무로 영입했다.

박병양상무는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상공무와 재무부에서 근무했다. 경제기획원장관 비서관, 농수산 부장관 비서관, 무임소장관 경제담당보좌관을 역임했었다.

'67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 동서무역(주) 부사장, 효성금속 전무이사, 대한치금(주) 등에서 근무했다.

경남도협, 도내 지부에 FAX 설치 자금 지원

본회 경남도협의회(회장 : 하오조)는 7월 13일 김해 지부에서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도협의회를

열고, 도내 지부중 FAX가 없는 7개 지부에 대해 FAX 설치자금을 지부당 25~50만원씩(3개지부 25만원, 4개지부 50만원) 지원키로 했다.

경남 협의회는 이밖에도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홍보 책자를 제작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1천6백만원을 경남도협의회에서 2백만원, 부산경남양돈 조합 임원 2백만원, 도내 다두사육농가에서 1천2백만원을 협찬받기로 했다.

보은지부 사무실 개설

보은지부(지부장 : 이문섭)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사무실을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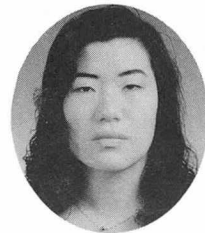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53-6(축협 동광지소 2층)

▲전 화 : (0433)44-3800

▲FAX : (0433)42-1936

보은지부 여직원 채용



이 미 경 양

보은지부(지부장 : 이문섭)는 지난 6월 1일 이미경(23세)양을 채용했다. 이양은 보은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